

지친 밤 위로하는 명사들의 낭독

온라인 플랫폼 '인문360' 매주 수요일 '한밤의 낭독자들' 명사들 책 속 구문 선별해 낭독 정지우 작가, 릴케 산문 소개 박준 시인·장항준 감독 등 예정



한밤의 낭독자들 1회에서 낭독자로 출연한 정지우 작가. <인문360 채널 갈무리>

“모두가 자신의 꿈을 꾸고 극한의 자유를 느꼈다는 찬사를 보낼 때, 어린 저는 자유의 불안전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달려구르 꿈 백화점’ 중에서)”

낭독의 밤, 정지우 작가가 읽어주는 책 속 문장들이 별처럼 빛났다. 무한 경쟁과 고독,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는 청춘들에게 미려한 언어들은 잠시나마 위로를 줬을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문360에서 선보인 '한밤의 낭독자들'은 명사들이 책 속 구문을 직접 선별해 읽어주는 온라인 릴레이 낭독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밤 9시 진행하며 지난 3일 정지우 작가가 첫선을 보였다.

이날 강의에서 정지우는 ‘누구나 겪는 깊은 고독과 마주하는 밤’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변호사로도 알려진 그는 ‘청춘인문학’,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등 청춘의 고민을 들여다보는 저서를 출간하며 주목받았다.

정 씨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산문집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속 구문을 읽어줬다. 릴케는 ‘말테의 수기’ 등 소설과 수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운문·산문에 비해 조명받지 못했던 릴케의 산문(편지)을 묶은 시간집을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정지우는 “이 책을 20대 때부터 좋아해서 스무 번도 넘게 읽었고, 릴케 산문을 주제로 ‘고전’에 기대는 시간’을 집필하거나 팟캐스트를 녹음했던 경험까지 있을 정도”라며 릴케 서간집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그토록 많은 인간들이 그들의 운명이 가슴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운명을 흡수하고 그들 내면에서 변화시키지 못한 바로 그 까닭에 그들의 가슴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책 속에서)”

책 속 문장들은 사회적으로 팽배한 개인주의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법한 내용이다. 그는 ‘운명’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운명의 방을 그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갖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저마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이 만들어내는 고통으로 비탄을 견디도록 하세요” 등 문장을 들려주며 절망에 빠진 청춘들에게 힘을 줬다.

정 씨는 “고독을 상상할 때 방 안에 홀로 갇혀있는 상상이 된다”며 “그러나 책은 우리가 고독할수록 그만큼 더 넓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 영역은 별에 닿을 만큼 넓어져 나를 성숙시킨다”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 이어 10일부터는 박준 시인, 상어송라이터 시와, 영화감독 장항준 등이 매주(수요일) 릴레이로 출연할 예정이다. 2월에는 배우 이설, 여행작가 최갑수를 비롯해 소설가 김중혁, 유튜브 김겨울이 각각 시민들을 만난다.

문예위 관계자는 “‘한밤의 낭독자들’은 단순한 인문 콘텐츠를 넘어,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상 속 압박이나 심리적 고립감 등을 위로하는 소통의 장이다”며 “청년을 위로하고 문화예술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앞으로도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인문360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OTT 플랫폼 등에도 공개 예정.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람과 동물, 더불어 사는 행복

순창 출신 양정숙 동화작가, 그림책 ‘과수원집 개 두마리’ 펴내



재몰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떠돌이 개가 된다. 이곳저곳을 떠돌다 같은 처지의 진돌이를 만나 친구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먹이를 구하기가 어렵게 된 것.

재몰이는 과수원에 들어가 닭을 마구잡이로 잡아 먹고 재몰이에게도 나눠 준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닭을 팔아 자신의 치료비에 보태기로 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순창 출신 양정숙 동화작가가 그림책 ‘과수원집 개 두마리’ (가분비 어린이)를 펴냈다.

책은 사람의 곁으로 돌아온 떠돌이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에서 재몰이와 진돌이는 자신들이 잡아먹은 닭 때문에 치료비를 걱정하는 주인 부부를 위해 묘안을 생각한다. 부부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주인들을 돕기로 한 것. 재몰이와 진돌이가 쥐를 잡으면서 과수원에는 더 이상 쥐들이 없진거리지 않는다.

이후 시간이 흘러 주인 집 사관나무 아래에는 닭

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며 지렁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펼쳐진다.

양정숙 동화작가는 “이번 작품은 동물과 인간의 소통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작품에 투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 출신 양정숙 작가는 조선대에서 문예창작을 광주교육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했다. 지난 2016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동화집 ‘구리구리 똥개구리’, ‘알롱이’, ‘까망이’ 등과 그림책 ‘새를 음미하’, ‘섬진강 두꺼비 다리’, ‘백배로 온 함천이’, ‘들기네 집’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기가수들, 광주서 보컬전쟁

장윤정·허용별·먼데이키즈 등 콘서트 잇따라 개최



장윤정 허각 신용재 먼데이키즈

원조 트롯 퀸 장윤정부터 먼데이키즈, 허각·신용재·임관별의 이름을 붙인 ‘허용별’까지...

이번 달 중순부터 말경에는 팬덤층이 두터운 대중가수들이 대거 광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화제다.

먼저 (주)공연마루가 ‘2024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를 오는 20일 오후 2시, 4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1999년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장윤정은 ‘어머나’부터 ‘어부바’까지 히트곡을 냈다.

이번 공연은 ‘라이브 콘서트’를 내거는 만큼, 장윤정의 히트곡 메들리를 실감 나는 목소리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R석 13만2000원, S석 11만 원 등.

(주)타임커뮤니케이션이 오는 27일(오후 3시,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올리는 ‘허용별 보컬전쟁’도 이목을 끈다. 슈퍼스타K로

데뷔한 허각, 포맨의 보컬리스트 신용재와 먼데이키즈 전 멤버인 임관별이 출연한다는 계획.

허용별의 신곡 중 사전공개곡 ‘HAPINESS’를 비롯해 세 가수의 듀엣, 트리오, 독무대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이전 공연에서 들려줬던 ‘빌려줄게’, ‘고백’ 등 대표곡부터 신곡 ‘PROMISE’ 등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석 11만 원 등.

28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에 ‘2023-24 먼데이키즈 콘서트 ‘The Real Voice’도 펼쳐진다.

먼데이키즈 보컬 이진성의 목소리로 ‘새살’, ‘발자국’ 등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전 콘서트에서 깜짝 게스트 출연, 고 김민수(먼데이키즈 멤버)의 목소리를 감상하는 코너 등이 마련될지 주목받는다.

R석 13만2000원 A석 9만9000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여순사건 문학적 형상화’ 학술대회

전남대 여수학연구원 11일

여순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증언을 비롯해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당시의 참상과 진행 과정 등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여순사건의 진상과 문학적 형상화를 모티브로 한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원장 김대현 교수)은 오는 11일(오후 1시)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문학적 형상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4명의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발표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편사연구관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를, 국민대 정선대 교수가 ‘MZ세대 ‘태백산맥’을 읽다’를, 순천대 10·19연구소 정미경 교수가 ‘여순사건 문집에 대한 평론과 의의’를, 여순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송은정 조사관이 ‘여순사건으로 발현된 여성의 투사적 면모와 문학적 형상화’를 발표한다.

정미경 교수는 “저희 연구소에서 여순 사건에 대해 발간했던 증언록, 잡지, 작품화한 문예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여순 사건이 어떠한



정미경 교수

이해 앞서 이날 오전에는 여순사건 유적지 탐방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여순사건 시화전’이 학술대회와 병행해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의미를 지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을 조명할 예정”이라며 “증언록 등을 매개로 여순 특별법이나, 여순사건 등을 쉽게 풀어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전남대 김준옥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기금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진화(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